

이재명, 25일 경기지사 사퇴...대선 모드 전환

본선준비 매진 “도민들에게 격 갖춰 인사”

文 주 후반 회동할 듯 “인사드리는게 도리”

李 양금 해소 ‘원팀’ 시도...선대위 사전작업

국회 국정감사 1라운드 판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조만간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으로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국감 후 사퇴를 선언하고 내주 초인 25일에는 지사직에서 물러나 대선모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그간 지체됐던 원팀 선거대책위원회 구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사직 사퇴 시점은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오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끌려오는 현직 단계장으로서

받는 국감을 모두 마치게 된다.

예상을 뒤엎고 국감을 받는 정면돌파 행보로 대장동 의혹을 상당부분 해소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본선 준비에 매진해야 한다는 판단인 셈이다. 지사직 사퇴 후에는 곧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도 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전날 국감에서 지사직 사퇴 시점을 묻자 “국감이 끝난 후”라며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도민을 비롯해 한술밥을 먹었던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정식으로 사퇴 인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격을 갖춰서 양해를 구하려면 퇴임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사직 사퇴로 운신의 자유를 얻는 만큼 본격적으로 대선행보에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은 국감 후인 이번 주 후반에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민주당 수석당원이고,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으니 제가 인사를 드리는 게 도리”라며 “국감이 끝나고 인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 양금을 푸는 모습을 보이며 원팀 결속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후보 측 인사들이 경쟁 후보를 도왔던 인사들과 물밑에서 접촉면을 넓히는 것도 후보간에 통 큰 회동으로 ‘화합 무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전작업을 거쳐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 대선체제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소병철의원, 윤석열에 “구성원 배신하는 행위”

“김오수 검찰총장, ‘본인 잘못 부터 사과’ 건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사직 후 검찰 수사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점을 짚으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는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전임 총장은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자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펼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윤 후보자는 사직서 인크로 안 맡았는데 검찰 수사에

대해 범죄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했다”면서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 후배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맞는가”, “검사·수사관·주무관 등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전직 수장이 저러니 어떻게 국민들에게 검찰을 신뢰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또 지난 14일 있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여기 보면 윤 후보자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조목조목 지적되어 있다”면서 “윤 후보자의 징계사건이냐 (판결문에) ‘비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 내용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소장이나 다름없다”며 판결에 적시된 법

위반 사항의 엄중함을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사 인력이 133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소병철 의원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사법기관 신뢰도 조사결과 검찰이 경찰·법원 보다 뒤진 ‘꼴찌’라는 점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가 검찰을 자주 비난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가족들은 참을 수 없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긍하며 “마음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 자치아카데미 모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6월에 실시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량있는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2021년 광주 지방자치아카데미'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시당은 지방선거 임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아카데미 참가자 70명을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식블로그 소식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30만원으로 장애인이나 만 35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지방선거 아카데미는 내달 1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2층 대회의실에

서 송영길 당대표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개강한다.

‘내가 만드는 새로운 광주,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지방자치 아카데미는 12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진행되며 총 8강으로 운영된다.

1일 첫 강의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송갑석 광주시당 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각각 ‘한국 현대사와 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광주 전남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다’를 강의한다. 특히 8강의 강좌에 전부 참여하면 더불어민주당 공식선거후보자 추천 자격인 당내 교육연수 16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서선욱 기자

외교부 “북한 내달

英기후변화총회

참석, 긍정 평가”

북한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6) 참석국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외교부는 “이번 COP26에 북한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처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원하는 경우 산림복원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국제사회와 함께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으로, 2019년 12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했다. 또 당사국총회에 실무 대표단이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참여해왔다.

최근 북한 대표단의 참석 현황을 보면 2019년 12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COP25에는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수석대표)이 참석했다.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COP24의 경우 국토환경보호성 국장(수석대표), 국가환경정책조정위원회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18일(현지시간) 뉴시스가 다음달 영국에서 열리는 COP26 공식 플랫폼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번 회의의 참가자에 북한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 관계자의 소속국은 북한의 공식 영문 명칭인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표시돼 있다. 신분은 ‘당사국 대표자’(Party delegate)다.

해당 인물은 관심 주제를 ‘역량 구축’, ‘기후 금융’, ‘적응·회복력·재난위험 축소·손실·피해’, ‘대양’, ‘과학·연구’ 등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영국은 남북 모두와 수교하고 있으며 런던에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도 운영 중이다.

COP26은 11월 1~12일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다.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는 약 200개국에 참석한다.

서울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直通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